

단순체계모델의 단순기능분석을 적용한 주부연구의 생점*

The Application of the Simple System Model Analysis to the Housewives' Study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부 교수 김 선 미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부 교수 송 혜 림
우석대학교 가정복지전공
조 교수 이 승 미

Major of Family Welfare, Kwangju Univ.

Associate Prof. : Sun mi, Kim

Major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

Associate Prof. : Dr.oec. Hey rim, Song

Major of Family Welfare, Woosuk Univ.

Assistant prof. : Seung mi, Lee

〈목 차〉

- I. 문제제기 ; 분석적 연구를 위한 기능분석의 유용성
 - II. 이론적 틀 ; 단순체계 모델과 단순기능분석의 일반가정 및 특수가정
 - III. 주부연구의 분석
 - IV. 요약과 논의
-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pplicates one of the five elaborated functional analyses of Piotr Stztompka to the housewives' study. The four general assumptions of plurality, wholeness, integration and boundary of the simple system issue the eight specific solutions; reciprocity, exploitation, consensus, conflict, dependence, autonomy, isolation and structural context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elements of the system.

From the eight specific assumptions of the housewives' studies, we have found

* 본 논문을 위해 조언해 주신 21주부문화연구소와 두 분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that many managerial subsystem studies see the housewives' relationships to other elements in their reciprocity, consensus, dependence and isolation characteristics. If the assumptions of autonomy and structural context are used to this kind of study, we can understand the housewives' problem and potential but as an active subject of their human lives, not as a simply passive primary manager of the family, and we can find a new concept of the development to change the housewives' quality of life.

I. 문제제기 ; 분석적 연구를 위한 기능분석의 유용성

가족을 하나의 큰 소비자단위로 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혼여성을 일컫는 주부(housewife)라는 역사적으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고, 그 주부직에 자녀양육과 남편의 일상생활 보조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가정관리가 맡겨져 왔다. 기본적으로 임금획득을 전제로 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주부에 대한 학문적 논설들은 가족제도와 관련지어 그 모순의 최종 담지자로서 조명되기도 하고, 최고의 혜택자로 치부되기도 하며, 일상적인 담론들로서는 무위도식하는 비생산적인 일군의 인구집단으로 질타받거나 소외가 본질인 현대적 도시생활에서 최후 안식처로 칭송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부직에 대한 자타의 인식은 기혼여성 개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논문들에서는 주부를 가정관리의 주체 또는 가족이라는 소비자단위의 대표로 놓고 파악함으로써 많은 부분 주체의 문제를 간과한 채 주부를 대상화하였고, 여성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선언적인 연구목표로부터 시작된 여성학에서의 주부 연구는 가족 속에서 주부가 갖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의외로 단순화하기 십상이었다.

본 논문은 주부라는 통합적인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해석하고 조직하며 체계화하여 의미 있는 설명체계로 구조화하기 위해 기능주의적 방법을 적용한다. 가족 체계의 한 원소인 주부를 연구하는 관점은 주부의 자리인 가족체계를 실체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포괄적인 틀 속에서 주부를

파악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체계를 보는 모델을 정교하게 재구성한 피요트르 쯔토크(1974)의 기능분석틀을 적용하면, 기존의 주부연구 결과들을 모으고 그 연구에 내재된 관점을 분석할 수 있고, 그에 논리적 추론을 더한다면 주부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 비교적 온전한 그림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전제이다.

쯔토크가 제시한 기능분석의 장점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취향에 의해 누락되거나 간과될 수 있는 측면을 골고루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양극단에 있는 가정(假定)들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즉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가족의 지속과 유지의 측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부의 기능만이 분석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갈등과 변화의 측면 및 그와 관련된 기능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 준다.

쯔토크는 다섯 가지 체계-기능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델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가족체계내에서 주부가 갖는 총체적인 이미지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서 먼저 단순체계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쯔토크의 기능분석은 체계의 제한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단순체계모형, 목적론적 체계모형, 기능체계모형, 목적 의식적 체계모형, 다원체계모형을 적용한 기능분석을 시도하고, 각 모델에서 일반 가정(假定)과 특수가정(假定)을 산출한다. 주부에 대한 통합적 이미지를 분석적으로 그려내는데 있어서 이 다섯 가지 기능분석의 방대한 적용이 필요한 것은 주부가 바로 방대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체계내 원소들과 주부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미시적, 거시적 환경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본 논의에서는 임의적으로 가족체계를 주부가 일차적으로 관계되는 체계로 보고 가족체계 내에서 주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관점과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기 위해 첫 번째 기능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의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점은 단순체계모델을 적용할 경우 체계 내부의 원소들(elements)간의 관계분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체계 자체의 분석이나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주부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설명은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원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부, 가족체계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의 주부, 가족체계를 둘러싼 보다 거시적인 환경과 가족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의 주부로 파악될 때 완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 본 연구에서의 단순기능분석은 가족체계의 다른 구성원소들과 주부와의 관계를 규명할 때 유용한 가정(假定)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틀 ; 단순체계 모델과 단순기능분석의 일반가정과 특수가정

‘주부’는 용어 그 자체로 가족체계를 전제로 탄생한 말이다. 따라서 주부는 반드시 가족체계와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쾨트카(1974)가 재구성한 체계-기능 개념모델 중 복잡성과 제한성에 따라 다섯 가지 기능분석을 적용하여 가족체계를 파악함으로써 가족체계의 한 원소인 주부를 연구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첫 번째가 된다.

쾨트카는 복잡성과 제한성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체계모델을 나누고 각각의 모델이 채용하고 있는 기능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모든 기능분석이 각각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동가정은 네 가지 일반가정이며 이 가정을 통해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단순체계모델이다. 네 가지 가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복수성(plurality)가정 : 사회(체계)의 일반적 성격은 변수들과 상태들로 구성된 원소들의 복합체라고 보는 가정

〈표 1〉 다섯 가지 체계-기능모델과 기능분석

체계-기능모델	기능분석
단순체계모델	단순기능분석
목적론적 체계모델	항발적 기능분석
기능체계모델	필요조건 기능분석
목적의식적 체계모델	동기적 기능분석
다원체계모델	하위체계 기능분석

- ② 전체성(wholeness)가정 : 그 원소들의 복합체를 하나의 구체적인 전체라고 특징짓는 가정
- ③ 통합성(integration)가정 : 그 전체에 대해 전형적인 내적 통합성의 특징을 규정하는 가정
- ④ 경계성(boundary)가정 : 그 전체를 세계의 다른 부분들과 묶는 외적 관계들을 규정하는 가정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복수라는 점은 명백하다. 주부와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원소들만 보더라도 다른 가족구성원, 물질 자원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체계 자체가 복수의 원소들로 분해될 수 없는 나름대로의 특수한 속성들을 가진 하나의 특수한 전체라는 가정은 여러 가지 가족관계, 자원관리체계를 포함하여 한 가족이 발전시킨 문화 등과 관련된 다. 가족체계의 통합성은 구성부분들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유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 하나를 바꾸면 반드시 다른 부분, 어떤 때에는 전체가 바뀐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주부의 사망은 주부의 인적자원을 대체하는 물질 자원의 소모를 가져오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구성원의 임금노동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교육투자의 감소 등을 초래한다. 특정체계의 관점에서 내부체계와 외부체계 범주로 원소들을 구분하여 체계와 환경 사이의 경계를 분리해 내는 경계성의 가정은 “소득과 소비의 창출을 공동으로 하는 소비자단위(consumer unit)” (Eastwood, 1987)가 되는 한 가족은 다른 가족과는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포함한다. 공사영역의 분리나 이웃과의 관계성 등은 가족체계의 경계성과 관련된 주제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가족체계는 단순체계개념을 포함

하므로 단순체계개념의 일반가정에서 발전된 다음과 같은 특수가정들을 가족체계 내의 한 원소인 주부연구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일반가정이 함축하는 것은 체계내 원소들간의 관련성만을 의미할 뿐 상호관계의 형태를 구체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쫄톰카의 견해이다. 주부 연구들에서도 일반가정만을 암묵적으로 활용한다면 원소들간의 관련성만을 규명하고 상호관계의 형태를 구체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네 가지 일반가정의 틀 속에서 원소들간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쫄톰카는 네 가지 차원의 변이성을 재구성하여 특수가정을 제안하였는데, 특수가정들은 네 가지 차원을 따르는 정반대의 극단 값을 의미하는 양극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단순체계모델의 일반가정과 특수가정

일반가정	양극단의 특수가정
복수성	: 호혜성(reciprocity) ↔ 착취성(exploitation)
전체성	: 일치성(consensus) ↔ 갈등성(conflict)
통합성	: 의존성(dependence) ↔ 자율성(autonomy)
경제성	: 고립성(isolation) ↔ 구조적 맥락성(structural context)

Ⅲ. 주부연구의 분석

주부의 일차적인 위치로 여겨지는 가족체계속에서 다양한 원소들과의 관계를 통해 주부를 바라본 연구들을 여덟 가지 특수 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여덟 가지 특수가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연구자들이 취해온 관점을 따라 주부의 어떤 측면들을 조명하고자 하였는지 판단해 보기로 하자.

1. 호혜성 대 착취성

복수성가정의 특수가정으로는 원소간 대칭적 관계와 동등한 관계를 상정하는 기능적 호혜성(reciprocity)가정과 맞은 편에 한 쪽의 손실을 대가로 다른 한 쪽이 이익을 얻는 방식을 지적하는 착취성(exploitation)가정이 있다(쫄톰카, 1974). 마르크스주의 여성

해방론에서는 자본주의적 가정의 본질상 저임금에 대응하여 가족이 존립하기 위해 또는 자본이 가족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고안물로서 바로 이 주부의 착취는 가족내에서 불가피하다고 보았지만(김선미 외2000), 기존의 가족체계연구에서 주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착취성가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착취성 가정은 착취성이야말로 사회의 정상상태이므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호혜성 가정은 연구의 우선 순위를 대칭적이고 동등한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착취성 가정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관계에 주시하거나 내재한 착취성을 숨기거나 방해하는 특별한 기제의 규명에 초점을 둔다. 주부연구에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모성이데올로기와 같은 기제가 바로 착취성을 조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초기의 구조기능론자들(Parsons & Bales, 1955)은 문화가 증가되는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고, 가족 내에서도 역할분화현상이 나타나 남편은 도구적 역할, 부인은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논의는 후기의 구조기능주의자들에게도 이어지는데, 이들은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연구의 관심을 가족내 가족관계에 국한시켜 가족이 개인의 욕구나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키는가에 보다 집중한다. 이와 같은 미시적 접근방법은 60-70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역할이론과 교환이론이 대표적이다. 역할이론에서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역할들간의 관계로 파악하고 가족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중심단위로 본다. 또한 교환이론은 공리주의 모형으로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교환하고 계산하는 행위자로 파악한다(박민자, 1995).

이와 같은 이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 중 배우자 선택문제, 부부의 역할,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인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호혜적인 것으로 가정한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 보

다 구체적으로 가사분담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분담문제는 다양한 관점이나 가설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중 상대적 자원가설이나 가족권력가설,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가설에 내재된 가정이 바로 구성원간의 호혜성이다. 즉 상대적 자원가설이나 가족권력가설에서는 부부의 교육과 노동력, 나아가 취업노동 참여에 따른 수입정도 등과 같은 부부간의 외적 자원이 가족내의 내적 분배력을 결정하고 이것이 부부간의 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가설은 가족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부가 각자의 임금을 비교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여 노동을 전문화한다는 것으로서, 이승미(1994)는 부부의 임금을 가사분담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권론자들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가족내의 여성억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족생활의 경험을 남성들의 경험으로 단일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모성을 신비화하여 여성을 출산하는 지위로 규정하는 것이나 부부관계를 애정으로만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여성억압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이 누구를 위한 천국이요 피난처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가사노동을 훨씬 적게 하는 남성들에게는 가정이 이러한 의미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가족은 상당한 양의 노동이 수행되는 장소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70-80년대 초에 가정주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이 하는 가사노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하는 연구로 이어진다(박민자, 1995). 가정·여성·주부에 관심을 가진 가정학연구자들도 과연 가정이 주부에게도 휴식의 장소인가 반문하고 있다(www.jubu21.or.kr; 사이버강의).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들은 무보수노동의 특성을 갖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이 자본, 그리고 가족내 남성과 맺게되는 관계의 본질이 착취적임을 밝혀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혜적인 관계로 묘사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 기저에 내재된 모성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이 어떻게 희생되고 규정되는가를 규명하는 작업 역시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일치성과 갈등성

전체성가정의 특수가정에는 모든 원소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미지로서 원소들의 목적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일치성(consensus)가정과 목표충족수단과 목표충족이라는 가치마저 찾기 어려운 이미지를 말하는 갈등성(conflict)가정이 있다. 일치성가정은 형태를 갖추고 질서가 있으며 조화로운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주로 파슨즈와 그의 추종자들의 관점에 채용된 가정이며, 갈등성 가정은 상호 적대적인 상황들에 주시하면서 갈등의 돌발을 예방하는 특수기제를 규명하는데 주요 관심을 모은다.

가정관리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여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자원별-경제적 자원, 시간, 주거공간 등-관리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가정관리행동을 통해 투입-과정-산출의 순환적인 관리과정 자체를 파악하는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주부는 가정관리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개별가정의 가정관리과정과 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정되며, 이와 같은 관리과정 속에는 가족원이 가족의 구성요소로서 가정관리의 목표와 자원배분방식에 합의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정관리분야에서의 연구의 기본 가정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성 보다는 일치성을 전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갈등성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도 있다. 갈등에 관해 파슨즈는 분열적이고 분해하는 역기능적인 영향을 갖기 때문에 체계 내의 치료받아야 할 병, 즉 이탈행동으로 정의하여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갈등론자들은 가족체계내의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서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가족이 안정되고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송말희, 1990). 가족원간의 갈등관계를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는 주로 후자의 입장에 터잡아 있는데, 부부간의 갈등과 해결방안(김정옥, 1985; 이영숙, 1990; 송말희, 1990; 최규련, 1994, 1995; 이미

영·박혜인, 1995; 이창숙, 1996), 고부간의 갈등문제(고정자, 1988; 이정연, 1990; 정혜정·서병숙, 1993),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김수연·정문자, 1997)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한 개인에게 부여된 다중역할간의 갈등(임정빈·정혜정, 1986; 이기영·구혜령, 1992; 김정신·김오남, 1996; 조은숙, 1999)에 관한 연구도 있다. 이는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존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일치성과 갈등성의 주제는 주부와 관련된 다른 원소들 전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원소들로서 가사용 내구재나 주거시설이 주부와와의 관계에서 호혜적인 측면은 무엇이며 착취적인 측면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과학기술과 가사노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과학기술의 산물이 주부의 가사노동을 쉽게 했으리라는 일반적인 가정을 뒤집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사노동의 양을 증가시키고 주부를 가정으로 되돌려보내는 측면을 규명하거나(Ruth Cowan 저, 김성희 외 역(1997)) 도시의 아파트가 전업주부들의 작업장으로 전제되어 있으면서도 전업주부들의 생산성제고를 불가능하게 하고 인스턴트식품의 조리나 알맞은 부엌시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부들의 질곡으로 규명한 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데니스 하트, 2001:53).

3. 의존성과 자율성

통합성가정의 특수가정에는 원소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고 체계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관점 즉, 원소의 존재는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그 체계 밖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의존성(dependence)가정과, 원소들은 제한적으로 체계와 연관될 뿐 상당히 독립

성을 갖는다고 보는 관점 즉, 원소가 체계 외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 체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관점을 함축한 자율성(autonomy)가정이 있다. "조작적으로 말해 체계의 한 부분의 기능적 자율성은 그 부분이 체계로부터 분리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Gouldner, 1959:254 쾨트카, 1974:94에서 재인용)

의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가족체계가 과도하게 통합되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는 가족체계의 유형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라 구분한 Olson 등(1979)의 순환모델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가족체계의 의존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가족 응집성의 경우 응집정도가 높은 수준부터 속박(enmeshed), 연결(connected), 분리(seperated), 유리(disengaged)의 네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응집성이 중간수준에 있는 균형가족이 가장 기능적이고 양쪽 극단에 위치하는 극단가족은 가장 역기능적이라고 하였다(최규련, 1994 재인용)¹⁾.

한편 주부, 특히 전업주부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의존성은 중요한 특성인데, 이는 가정관리의 주체자로, 그리고 가정살림 즉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주부, 그 중에서도 전업주부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가족체계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체계의 의존성가정은 다른 요소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어머니와 아들간의 의존성이 고부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인데, 이는 고부갈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자율성가정을 통해 주부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상호 의존된 주부나 다른 가족원의 삶이 다양한 위기에 의해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자율성의 작동기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더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 다른 체계와 관련될 때 가족체계를 매개하지 않는 자율적인 존재로서도 작용기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1)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최적의 가족기능과 선행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제안하면서 순환적 모델에 기초한 유형구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Beaver & Voeller, 1983; Smith, 1985; 최규련, 1994에서 재인용).

울성을 키우거나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부에 대한 비난은 자주 성찰하지 않는 또는 성찰하기 싫어하는 주부의 속성과도 관련되는데 이는 자율성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지극히 통합된 가족체계에 의존된 전업주부가 자기 내부 원소간 통합성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율성이라는 관점은 주부연구에서 비교적 최소한데, 최근 변화순 등(2001)은 가족내 주부의 지위를 연구한 바, 주부들의 자율성도 중요한 관점으로 삼아 주부들의 성적 자율성과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부가 사회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양상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주부의 여가나 자원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의숙·이기춘, 1992; 김소영, 2000)들도 일정 정도 자율성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자율성부족을 진단하고 그 향상을 위한 자율성을 중시한 교육프로그램모형(노영주 외, 1999)이 제시된 예도 드문 예이다.

도시 중산층 주부의 일상성을 연구한 윤택림(1996: 235)은 전업주부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성의 행위성(agency)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여성의 주체(subject)가 어머니로서만 형성되고 부부관계나 친족연계망 속에서 입지가 확고해 질 때 가부장제가 재생산될 뿐이라고 보면서 새로운 여성주의적 모성 개념의 정의를 요구하였는데 그의 연구의 관점에는 바로 자율성의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의존성가정과 자율성가정은 주부연구에서 공조와 자립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의존성가정은 최대한의 상호의존성 또는 의존의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자율성가정은 최소한의 상호의존성 및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의존성과 자율성의 양측면을 고려하여 주부의 삶에서 적절한 의존과 자율의 균형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4. 고립성과 구조적 맥락성

환경과 맺는 관계를 말하는 경계성 가정의 특수가정에는, 체계의 과정과 내부 과정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체계의 내재적 속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고립성(isolation)가정이 있고, 체계의 환경이 체계 내부 사건들과 과정들에 대해 수정하고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구조적 맥락성(structural context)가정이 있다.

사회적 분업체계 속에서 家庭에 고립된 주부의 정체성은 고립성假定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별 家庭의 특수성이 주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립성이 클수록 남편과의 관계 및 자녀 그리고 시대과의 관계에 의해 주부의 삶이 크게 규정되며, 다른 사회체계의 변화발전의 속도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문화지체를 경험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규명할 수 있다.

한편 구조적 맥락성의 가정으로 설명해야 해석할 수 있는 특수한 대상과 문제들도 있다. 체계가 놓여 있는 넓은 맥락을 고려할 때 동일한 원소가 그 체계가 놓여 있는 광범위한 환경에 의존하여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주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서 주부가 속한 가족의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계층, 역사적 시기 등에 따라 주부의 기능이 달라진다고 보게 해 주는 가정이다.

고립성가정을 적용할 때 가족 내에서 주부를 파악할 때 가정학분야의 절대다수의 연구(이미숙, 1995; 배희분, 1992 등)가 연구 설계 시, 부부와 자녀로 된 핵가족 또는 기껏 범주를 넓힌다면 시부모나 친정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가족체계(이신숙·서병숙, 1994 등)를 설정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존립가능성이나 직업적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전제된 핵가족을 집중 연구할 때 취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족내 가사분담이나 가정관리 등과 같은 주제(최정연·이정연, 1999)나 소비지출의 문제(이승신, 1999)를 다룰 때 역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고립성가정과 구조적 맥락성가정을 함께 고려할 때 역사적으로 그 상대적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며 지역적으로 어떻게 다른가하는 주제가 탐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 관점에서 이 두 과정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전산업사회에서도 그 사회의 전형적

인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지만 보편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는 핵가족형태였다는 가족사의 연구결과(앤더슨 저1986, 김선미 외역,1995)는 전산업시기에 관찰된 핵가족의 경계가 현대적인 핵가족의 경계보다 더 투과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지역적 또는 사회적으로 가족의 경계를 넘어 들어온 환경의 영향을 살펴본 예를 보면, 제주도 여성의 삶과 가족을 주제로 한 2001년 한국여성학회의 지역학술대회에서 육지부와 제주도 주부의 삶의 상이성이 규명되었는데(한국여성학회, 2001) 가족내부에서 관찰되는 주부의 독특한 삶도 결국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요소가 투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지역에 따른 주부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 연구(장윤옥,1999)등도 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IV. 요약과 논의

한 개인 즉 여성으로서의 주부, 가정살림의 담당자로서의 주부, 가족체계내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의 주부, 가족체계를 둘러싼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가족체계내의 구성요소로서의 주부 등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주부라는 주제에 접근하고 분석할 때, 그 통합적 이미지와 역할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다는 입장에 기반한 주부연구의 첫 번째 시도로서 기존의 주부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조직화하여 새로운 설명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사회체계를 보다 정교한 모델로 제안한 썬튼카(1979)의 기능분석의 틀을 적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그려지는 주부의 모습은 어떤 속성에 근거하여 묘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썬튼카의 단순기능분석의 유용성은 이전까지의 체계모델이 체계내 구성요소간의 관계성의 유무를 규명하는데 주로 관심을 기울인 것에서 나아가 체계내 구성요소간의 속성을 양극단적인 특성으로 대립시켜 포괄함으로써 구성요소간의 관계의 구체성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주부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체계의 하위체계 중 인적하위체계내에서 주부의 위치와 역할 또는 문제보다는 관리적 하위체계에 집중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많고 주부를 그 자신을 독립적 인격체로 보는 관점을 배제한 채 가정살림 또는 가정 관리의 주체나 대표로만 파악하였으며 연구자들의 관심의 출발이 가족구성원간의 호혜성, 일치성, 의존성, 고립성의 가정에 입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족 혹은 주부가 담당하는 가사노동, 그리고 모성 등을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관계의 본질을 보다 착취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갈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는 갈등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갈등성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도 가족관계분야에서 상당수를 발견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율성 가정의 경우 주부의 여가활동이나 자원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가 있지만, 주로 가족과 관련된 여가활동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볼 때 이에 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조적 맥락성 역시 가족사분야와 비교할 때 가정자원관리분야에서는 다소 간과되고 있는 가정인데, 기존의 가정학분야에서의 연구경향이 다소 정태적이고 횡단적인 현상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둬서 따라 가족이나 가정생활의 역사적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구성요소와 환경과의 관계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취약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족체계 자체나 내부의 관리과정, 혹은 구성원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접근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가족체계와 그를 둘러싼 주요 환경, 즉 경제체계, 정치적 체계, 사회구조적 체계와의 상호작용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와 주부에게 미친 영향들에 관한 분석도 미미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상대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관점들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주부연구에 관한 방향과 연구과제를 제안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주부를 주제로서 연구할 때 가족체계에 속한 한 개인으로서 보다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분석과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아줌마"에 관한 담론도 가족이기주의의 대표자로서 몰염치하고 무경우한 인간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정

치세력의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모성을 근거로 한 아줌마야말로 새로운 세상 만들기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자율성의 가정을 통해 분석할 때 그 논의가 보다 진전될 것이며, 그를 통해 이제까지의 연구가 주부를 가정의 일차적 관리자로 설정하면서도 자기 삶의 주제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상화해오던 관성을 벗어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내에서 억압되고 종속된, 기본적인 인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개인으로 묘사되면서 개인의 인권확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모임과 움직임이 태동하는 것도 자율성의 주제는 이미 삶의 자리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학분야에서의 주부에 관한 연구에서도 자율성의 맥락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정학분야에서의 강점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가족체계에 속한 주부의 특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면서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여성학적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초점이기도 하다.

둘째, 구조적 맥락성의 가정 하에서 주부를 분석하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는 주부 연구들이 있었으나 국가와의 관계와 같은 거시적 환경이 주부를 어떻게 규정했는가하는 관점 등도 반드시 채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주부와 개발의 정치학연구(데니스 하트, 2001)는 정치학자의 주부에 대한 관심이 낳은 좋은 산물로서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주부는 가족 내에 고립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가족과 가정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간중심의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주부들의 적극성과 행위성의 결과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쾨트카(1979)가 제안한 여덟 가지 특수가정이 가족체계내 주부와 관련원소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해법을 제공한다고 볼 때, 한 연구에서 양극단의 해를 사용하여 연속선상에서 상대적인 속성을 밝혀내도록 연구를 설정할 수 있다. 그를 통

해 변화의 가능성이나 유지 존속의 확률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덟 가지 가정을 상호간의 관련성 속에서 중첩적으로 설정하여 주부의 삶의 현실을 파악할 경우 가족체계내 원소들과 주부와의 관계의 속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특정 가족구성원간의 의존성은 다른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며, 외관상 일치된 것 같아 보이지만 기저에는 착취성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들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내의 구성요소간의 관계의 속성에 초점을 두는 단순기능분석을 적용함에 따라 가족체계내의 다양한 요소 중 특히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보다 집중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부와 관련을 맺는 원소들을 보다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부의 통합적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서 구성요소와 가족체계 자체와의 관계와 역동성, 그리고 가족체계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주부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 역시 앞으로의 주요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D.B. Eastwood(1987). *The Economics of Consumer Behavior*. 김용희 역. 소비자경제학, 비봉출판사
- 2) Michael Anderson(1987). *Three Approaches to The Western Family History, 1500-1914*, 김선미의 역, 서구가족사의 세가지 접근방법, 한울출판사
- 3) Ruth Cowan저, 김성희 외 역(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서울 : 학지사
- 4) Piotr Stzomka(1974). *System and Function*, 김선미 외 역(1995). *체계와 기능*. 한울 아카데미
- 5) 데니스 하트(2001). 한국의 주부와 개발의 정치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47-67
- 6) 고정자(1988).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고부 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129-160.

- 7) 김정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8) 김선미·이승미(2000). 가사노동을 통한 주부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논의. *한국가정과학회지* 3(2), 47-57
- 9) 김소영(2000). 주부의 자원활동 참여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10) 김의숙·이기춘(199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61-74.
- 11) 김정옥(1985). 도시 부부의 갈등해결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폭력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91-110.
- 12) 노영주·옥선화(1999). 여성의 자율성 향상을 위한 어머니교육 프로그램 모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22.
- 13) 배희분(1992). 취업주부의 부양자역할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14) 변화순(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6)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8.
- 17) 송혜림(2000). 주부대상 인터넷사이트 운영의 실제, *한국가정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 18) 윤택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한국여성학회 제12차 춘계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203-242.
- 19) 이기영·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 20)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21) 이미영·박혜인(1995). 전화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4.
- 22) 이승신(1999). 도시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주부의 생활양식성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7-32.
- 23)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지* 3(1), 23-31.
- 24) 이신숙·서병숙(1994).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29-139.
- 25)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49-68.
- 26) 이정연(1990).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35-146.
- 27) 이창숙(1996). 도시 부부들의 사회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결혼 5년 미만의 부부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01-214.
- 28)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4.
- 29) 장운옥(1999). 주거지역에 따른 주부의 주거가치와 주거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105-123.
- 30) 정혜정·서병숙(1993). 고부갈등에 있어서 자기통제력 타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19-133.
- 31) 조은숙(1999). 전문직과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73-192.
- 32)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33) _____(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34) 최정연 이정우(1999).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적응력이 가정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63-82 .
- 35) 한국여성학회(2001). 제주도 여성의 삶과 가족. *한국여성학회 지역학술대회*.
- 36) 21세기주부문화연구소, 사이버강의, www.jubu21.or.kr